

더 촘촘하고 편리해진 하남의 교통망
하남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8



22

시민과 ● 함께

- 4 **정책 런웨이**
상상, 현실이 되다
하남 지하철 12단계 개통 완료

함께 만드는
“하남다운 지하철 역사”
- 8 **줌인**
하남에서 즐기는 시간 여행
하남역사박물관 그리고 역사공원

시민의 시선으로 무심코 지나친 일상에 관한 소모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
- 12 **브랜드 in 하남**
“잊지 말아요, 함께 기억해요”
삼일절에 만난 하남의 독립운동가들

오늘의 ● 하남에서

- 16 **뷰파인더**
도심 속 리틀 포레스트
하남 시민 공공 텃밭

모두의 공간, 품질을 높이다
하남 공공 건축물 품질 검수
- 20 **지식 샐러드**
원하는 장소에서 입맛대로! 취향대로!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배움, 온라인 강의를 말하다
- 22 **빛나는 학습공간**
‘목향 물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학습 공간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
- 24 **1%의 어떤 것**
하남, 너는 내 운명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

청정하남

2021년 3월호(통권 제 186호)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발행인 하남시장 편집인 도시브랜드담당관 발행처 하남시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전화 031-790-6066

홈페이지 www.hanam.go.kr 기획·디자인·제작 ㈜성우애드컴 Tel. 02-890-0900 《청정하남》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보이스아이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는 바코드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바코드를 보이스아이 전용기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표지 설명

하남 지하철 2차 개통 완료!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남의 지하철,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내일의 ● 하남으로

- 26 **생생 가이드**
위기를 기회로, 모두를 위한 '비대면 축제'
- 28 **트렌드 ON**
인간을 바라다, 인간을 갈망하다
'휴먼터치'로 완성하는 언택트 시대
- 30 **공유 주방**
새로운 시작 앞에 선 그대에게, 아이싱 쿠키 꽃다발
- 32 **100m 북카페**
시민들의 반짝이는 꿈을 응원하는 베이스캠프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
- 34 **요모조모 툰**
하남 일자리카페

한 걸음씩 ● 나아갑니다

- 36 **의회 소식**
- 37 **문화 톡톡**
- 40 **지금 여기, 하남**
- 42 **포스트 It**
- 48 **놀러 와**
- 49 **하남 In★gram**
- 50 **월간 한 줄**

<<청정하남>> 우편 정기구독 신청

- 온라인: 하남시청 홈페이지 - 왼쪽 상단 - 청정하남 -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매월 20일 이전 접수 시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 주소 변경, 구독 해지를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하남시청 도시브랜드담당관 031-790-6066



시정 소식 문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하남시청 홈페이지 - 하남소식 - 시정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송 내용: 주요 시정 소식(격주), 코로나19 관련 긴급 안내(수시)



상상, 현실이 되다 하남 지하철 1·2단계 개통 완료

1814년 영국의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기관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 남짓이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일본 신칸센으로,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600km에 이른다. 시속 10km의 증기기관차가 훗날 시속 600km의 초고속 교통수단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다.



5호선 하남선 1단계 개통

2020년 8월 8일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첫 열차가 하남풍산역에서 출발했다. 하남시와 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하남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원도심과 신도시, 사람과 일자를 잇는 철도 도시 하남으로 우뚝 서게 됐다. 2015년 3월 착공 이후 5년 5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거쳐온 하남선 1단계 개통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통근 시간 10분 내외, 평시 12~24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통 축하 행사에는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하남풍산역 썬크광장에서는 뮤지컬 배우 이견명, 테너 김민석 등이 참여한 게릴라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 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하남풍산역에는 이벤트광장이 조성되었다. 하남선 개통으로 하남은 서울의 베드타운을 넘어, 서울 생활권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단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하남에서 직장을 얻는, 이를테면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내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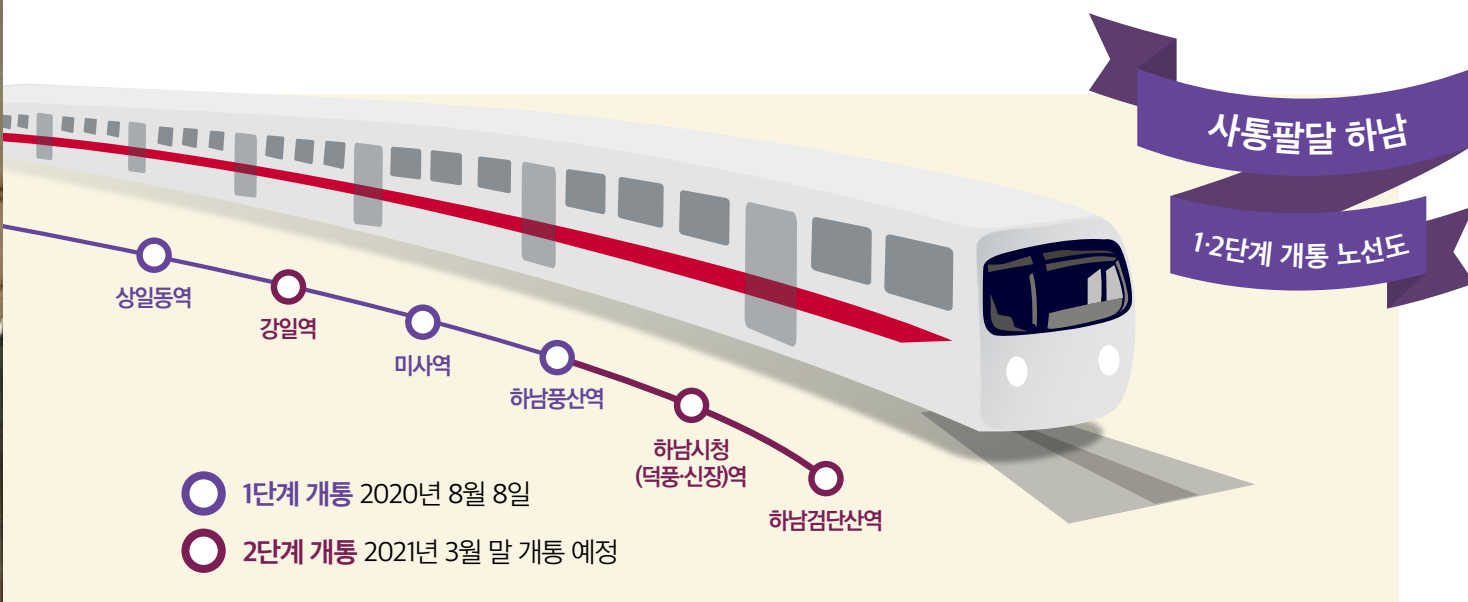
5호선 하남선 2단계 개통

하남선 1단계 개통에 이어 하남풍산역, 하남시청(덕풍·신

장)역, 하남검단산역을 잇는 2단계 2.9km의 구간도 2021년 3월 말 개통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2단계 개통이 끝나면 서울과 하남을 넘어, 하남의 원도심과 신도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7km 구간의 하남선 1단계 개통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으로 이어진다. 1단계 구간 가운데 상일동역과 미사역 사이인 강일역과 2단계 구간인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은 이 달 내 개통 예정이다. 하남선 12단계 총 연장은 7.7km에 이른다.

하남 지하철은 단지 교통의 역할을 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만남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개통은 현재 절차에 따라 영업시운전 등 개통 전 최종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함께 만드는 “하남다운 지하철 역사”

만약에 우리 동네 지하철 역사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바뀌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시민과 함께 지하철 역사 활성화 방향을 고민하며 시작한 ‘시민이 만드는 지하철 역사 활성화 Project’를 소개한다.



새로운 형태의 협업

최근에 ‘공유’와 ‘협업’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했다.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소통창구가 활성화되면서 자유로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숨겨둔 재능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협업하며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새롭게 개통하는 하남시의 지하철 역사 활성화 방향을 시

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민이 만드는 지하철 역사 활성화 Project’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됐다. 기존의 협업 체계를 벗어나, 시대에 맞는 형태의 협업 모델을 구상하는 것. 이 프로젝트의 대상자는 ‘시민 누구나’였다. 모집 결과 총 103명의 지원자가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했다.

더 좋은 하남을 위한 시민참여단 활동

시민참여단은 미사역 팀, 하남풍산역 팀, 하남시청역 팀, 하남검단산역 팀, 개통이벤트 팀 등 총 5개 팀으로 나뉘어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활동을 이어갔다. 팀마다 선출한 리더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활성화에 관한 주제 토의를 진행했으며, ‘하남다움에 대한 고찰’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부터, 역사 내부 카페 공간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다. 103명의 시민참여단이 진행한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①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하남다움’ 이미지 제작

하남시 지도 모형을 활용하여 지하철 개통 기념 디자인을 제작했다. 선정된 작가는 손지우, 서예진(신평초), 임숙자(시민예술가) 등 총 3명으로, 선정



된 작가들의 디자인 초안은 디자인화되어 지하철 개통 대형 현수막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출되고 있다.

② 지하철 개통기념 토크콘서트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 시민참여단은 2020년 10월 22일 하남풍산역 썬크광장에서 열린 지하철개통기념 토크콘서트를 촬영했다. 이날 촬영한 자료는 지하철 하남선 개통 홍보에 필요한 블로그 영상과 유튜브에 활용되었다.

③ 하남시청역 활성화 및 신장1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협업 활동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 팀원과 시민참여단, 신장1동 주민이 함께 모였다. 한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결과 보고 및 신규참여자 사업 설명 등을 진행하고 녹지 공간을 가꾸는 등 아름다운 신장1동을 위한 협업 활동을 펼쳤다.





하남에서 즐기는 시간 여행 하남역사박물관 그리고 역사공원

‘역사도시’하면 대개 지방에 위치한 경주나 공주, 부여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하남도 그에 못지않은 문화유적이 풍부한 도시이다. 하남역사박물관 각 전시실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은 대부분 하남에서 출토되었거나, 하남과 관련 있기 때문에 내 고향 하남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하남을 읽는 시간, 하남역사박물관에서 가져보자.

현재 진행형 역사 여행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의 문화유산을 수집, 연구, 보존, 전시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테마가 있는 전시실을 총별로 운영 중이며, 1층에서는 방문자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추억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체험실과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다. 2층은 근현대실, 조선실로 구성

되어 있으며, 3층 고려실, 고대실, 선사실에서는 가장 오래 된 하남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남의 시작인 구석기시대부터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까지 고루 갖춘 하남역사박물관의 시간과 기록은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좋겠다.



산책처럼, 시간 여행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시에 흩어져 있던 고인돌, 비석 등 석조 유물을 모아 야외에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역사공원은 박물관에 인접한 풍산지구 근린 4호 공원의 조경공간에서 북쪽의 야외 전시 공간으로 이어진다. 휴식으로 다듬어진 숨결에 자연스럽게 하남의 역사적 숨결을 덧붙이는 공간인 셈이다.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는 지난 시대로의 시간 여행. 그 여행을 아주 살짝 엿보기로 하였다.

청동기시대 여행

풍산지구 근린 공원의 소나무 숲속에는 고인돌 5기가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남에는 지금까지 고인돌 17기가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이곳 고인돌들은 광암동과 하사창동에 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에는 전세계 고인돌의 약 50%인 4만여 기가 분포하여 한반도 거석문화를 보여준다. 이중 하남을 포함한 한강 유역에는 고인돌 약 50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담긴 고인돌. 역사공원에서 5기의 고인돌을 찾아보자.

조선시대 여행

역사공원에서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뒤로하고 박물관 산책로에 이르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건축 부재와 비석 등을 만나게 된다. 건축 부재는 주초석 5점과 문주석 8점, 장대석 7점 등으로 하남 춘궁동 등지에서 수습된 것들이다. 비석은 우응정영세불망비(禹應鼎永世不忘碑)로, 조선 후기 문신 우응정이 민생을 보살폈던 치적을 기리기 위해 1916년에 건립되었다. 가벼운 호흡으로 만나본 하남의 장구한 역사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바로 하남역사박물관 전시실로 향하자.



한 스폰 정보

인류 최초의 신소재 '청동기'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배합해 만든 합금이다. 돌을 깨고, 갈아 도구를 만들던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진입은 말하자면 창조적 진보였다. 두 개의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알맞은 녹는점을 찾아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럼에도 청동이 철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건 불 때문이다. 철이 불에 녹는 점은 약 1500℃. 그에 비해 청동이 녹는 점은 870~990℃ 사이다. 불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 인류의 선택. 재료 배합부터 완성까지 숏한 실패를 딛고 만들어 낸 인류 최초의 신소재가 바로 청동이다.

하남역사박물관

- **관람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 운영
- **휴 관 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휴관
- **관 람 료** 무료
- **문 의** 031-790-7990
-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30(덕풍동)
하남역사박물관





시민의 시선으로 무심코 지나친 일상에 관한 소묘 하남의 시간을 그린다

2000년대 이후 하남은 빠르게 도시로 성장했다. 물길을 넓게 열고, 건물을 높게 올렸다.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한 지금, 지역 정체성 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얻었다.

지역의 추억을 모으고, 과거의 일상을 재조명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하남의 시간을 그린다'가 탄생한 이유다.

시대가 쌓여 만든 도시

높은 건물이 촘촘하게 늘어선 하남을 산책하고 있으면, 땅 보다는 하늘을 더 자주 쳐다보게 된다. '건물이 어디까지 솟아 있나'하며 높이를 가늠하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다. 이 현대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땅 밑을 보는 것. 하남의 땅 밑에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도시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시대 위에 또 다른 시대가 포개져 완성된 도시가 바로 하남이다.

하남시에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와 유물, 기록들이 남아 있다. 신석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까지 형성된 유적이 남아 있는 하남 미사리 유적과 삼국시대의 흔적이 묻어 있는 이성산성 등 아주아주 오래된 시대의 일상이 땅 밑에서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최근 빠른 성장과 개발로 도시는 점점 키가 커지고 있지만, 하남의 발아래에는 더 깊고 오래된 역사가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과거의 시간이 쌓아 올린 단단한 땅 위에 선 도시 하남. 이제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숙제에 당면했다.

역사는 결국, 시민의 것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하자면, 왠지 시민 개개인은 사라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 완성되는 것. 유적과 유물은 어떤 이의 주방, 필기도구 등 시간 속으로 숨어버린 일상이다. 그러니 도시의 과거를 만들어 온 것도 사람이고, 현재를 완성해 가는 것도 시민이다.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는 일종의 새로운 역사 보고서다. 다른 누군가의 손이 아닌, 역사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그린다.

하남시는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과거를 기억하고 스케치하는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를 기획했다. 무심결에 지나친 하남의 어제와 오늘을 시민과 함께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일. 평범한 시민의 시선이야말로 과거에 펼쳐졌던 보통의 일상을 가장 잘 공감할 테다. 흔한 일상이 오래 잊히면 귀한 유물이 되듯 시민의 일상적 시선 역시 시간과 지날수록 더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 프로젝트는 하남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우르고 있다. 도시와 시민이 함께 공명하며 그려내는 지역 정체성은 어떤 모습일까.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

☑ 프로그램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
프로그램 이수(3개월)

작품 활동
(하남 명소)

전시 준비

기획 전시

☑ 기간: 2021. 2. 18. ~ 2021. 5. 27.

☑ 일시: 매주 목요일 9:30 ~ 12:00

☑ 장소: 미사도서관 1층 문화교실

☑ 문의: 031-790-5304 / 5682



“잊지 말아요, 함께 기억해요”

삼일절에 만난 하남의 독립운동가들

서울시와 인접한 하남시는 예로부터 정치·사회적 사안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3·1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을 넘어 경기권 독립운동의 거대한 파고를 일으킨 하남시의 만세운동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남 지역의 남다른 민족정신을 만나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는 수도 서울,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있다. 일제가 조선의 침략과 지배를 위해 다수의 기관을 서울에 설치했던 시절, 경기 지역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덕분에 식민제도의 부당함과 억울함, 분노가 보다 빠르게 전달되면서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당위성을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웠던 경기도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1914년 2월 대한독립의군부가 편제를 구성할 때 서울, 강화, 개성, 수원, 광주에 5명을 설치한 배경만 봐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무게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하남 지역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맹활약을 펼쳐왔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격분한 유생들이 일으킨 을미의병의 경우 하남 지역 의병들은 남한산성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활동했다. 1908년 광주군 동부면에서 의병들이 체포되거나, 일본인이나 한국 순사 등과 맞붙어 싸운 기록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끈질기게 항전한 정신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3·1운동 당시는 어땠을까? 경기도의 3·1운동은 3월 초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경기도 21개 모든 부와 군에서 17만 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가 300회 가까이 발생했다. 이렇게 치열하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원인은 서울의 움직임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지방 사회의 지식인, 청년, 유생층의 선도적인 역할과 농민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경기도의 만세운동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초순에 기소된 인물의 66%가 지식인, 청년, 학생이었고 만세운동이 절정에 달한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는 기소된 인원의 90%가 농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민들은 평화적 시위에서 면사무소, 군청, 경찰관서 등 일제 침략 기관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고 시위를 벌였다.

3·1운동, 그 뜨거웠던 하남의 함성

하남지역의 만세운동 상황을 살펴보자. 1919년 3월 21일에서 31일 사이 광주에서는 11회에 걸쳐 7600명이 시위에 참

여했고 4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400명이 참가한 시위가 한 차례 벌어졌다.

동부면 만세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교산리의 구장이었던 이 대현은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3월 26일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 동네 주민 십수 명과 함께 마을 야산에서 봉화를 밝히며 1시간 동안 햇불 시위를 전개했다. 새벽 3시경 산에서 내려와 만세운동 시위대와 함께 면사무소로 가 30분가량 독립 만세를 외친 후 해산한 그는 오전 11시경 다시 30여 명을 모아 오후 2시까지 면사무소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9월 13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월 27일 아침 망월리 구장 김교영은 사환을 시켜 마을주민을 불러모아 1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동부면사무소로 가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 일로 그는 6월 2일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월 26일 오후 10시 풍산리 농민 김홍렬은 마을 주민 20여 명을 모아, 함께 산으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27일 오후가 되면서 구천면 주민들이 합세함으로써 연합시위로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대현, 김교영, 김홍렬 등 14명이 체포되었다. 같은 날 구천면 길리 및 동부면사무소 앞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만세를 외쳤고 동부면과 서부면의 산 위와 남한산에 봉화를 올리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또 상일리에서도 천여 명의 주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헌병주재소로 밀려가 헌병을 포위하고 돌을 던지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 헌병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중부면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만세운동을 하는 도중 중부면장이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인사불성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3월 28일 오폐면과 경안면의 시위에서는 15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청 앞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군수를 압박했고 헌병 보조원의 무기를 빼앗으며 돌을 던져 우편국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들은 일제 헌병의 발포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선조의 독립운동 정신

광주군에서의 만세운동 역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과 학생이 참여한 이 시위들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경기도 24개 지역 가운데서 광주군이 집회 횟수로는 5번째, 참가 인원 수로는 6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았다. 광주군 내 만세 시위가 집중적으로 전개된 1919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3월 27일 오폐면에서는 1500명의 농민들이 참여해 6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지금의 하남시에 해당하는 동부면에서는 27일 300여 명의 주민이 면사무소를 습격했고 같은 날 서부면에서도 1000명이 면사무소를 덮쳤다.

서부면의 만세운동은 감일리 구회서가 주도했다. 27일 새벽 마을 야산 햇불 시위로 시작해 주민 40여 명이 서부면 사무소와 상일리 헌병주재소로 행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면사무소와 헌병대에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자 헌병들이 발포하여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5월 6일 구회서는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구회서나 이대현의 재판 과정 진술에 따르면 서울에서 3·1 운동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과 천도교 교단의 활동이나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을 통해 3·1운동 발발 소식을 듣고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동부면과 서부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었던 만세운동은 태극기를 미리 준비하고 햇불 시위를 전개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부면과 서부면, 구천면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큰 연합 시위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서부면 시위 과정에서 일제 헌병의 발포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만세운동을 격화·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남 지역의 독립 만세운동은 당시 광주군 3·1독립만세운동의 출발지점으로 이후 만세운동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서 나라 전체를 독립 의지로 달구는 뜨거운 마중물 역할을 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2021년 대한민국의 자유.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의 위대한 민족정신을 잊지 않고 더 부강한 나라를 위해 전진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남의 독립운동가 1919년 그날의 기록



이대현

3월 26일 태극기를 만들며 만세운동 준비
3월 27일 새벽 2시 동네 주민과 마을 야산에서 횃불 시위 전개
3월 27일 새벽 3시 만세운동 시위대와 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를 외침
3월 27일 오전 11시 면사무소 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 헌병에 체포
9월 13일 징역 2년형 선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김홍렬

3월 26일 산으로 올라가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 주도
3월 27일 구천면 주민 합세하며 연합 시위로 확대.
이 과정에서 이대현·김교영·김홍렬 등 14명 체포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김교영

3월 27일 동부면사무소 앞에서 만세 시위 주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구희서

3월 27일 서부면사무소 앞에서 새벽 마을 야산 횃불 시위
5월 6일 징역 8개월형 선고
1992년 대통령표창 추서





도심 속 리틀 포레스트

하남 시민 공공 텃밭

가끔 그런 날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생명에게 위로받는 날. 이를테면, 삭막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초 하나가 유독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 없는 식물로 가득한 숲속에서 도리어 충만한 감정을 얻는 경험처럼. 결국,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이 위로한다. 하남 시민 공공 텃밭은 단지 생명을 키우는 장소가 아니다. 흙에서부터 자라는 생명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시민을 위한 리틀 포레스트다.



계절을 채색하는 공간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인공 구조물과 편리성을 갖추었다. 하지만 언제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이다. 숲한 건물 사이에서 도시 사람들은 계절의 색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겨울의 갈색, 꽃의 색으로 찬란한 봄의 연분홍색, 가장 진한 여름의 초록색, 가을의 붉고 노란색 말이다. 도시에는 계절의 색이 사라지고 언제나 같은 색을 내는 건물만 가득하다.

하남시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하남 시민에게 공공 텃밭을 분양하기로 했다. 공공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파종에서 시작해 수확, 또 휴이 쉬는 겨울까지 다양한 계절의 색을 마주할 테다. 단지 친환경 여가 생활을 넘어, 계절이 넘어가며 미묘하게 변하는 색채를 직접 경험하는 일. 공공 텃밭에서 잃어버렸던 계절의 색을 조금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생명이 만들어내는 색들이 시민을 위로하는 곳, 계절을 채색하는 공간, 하남 시민 공공 텃밭이다.

살아 있는 것들의 위로

하남시민 공공 텃밭은 미사뫼텃밭 텃밭과 초이 텃밭 등 2개소 총 550구획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구획을 나누는 건 낮은 키로 쌓아 올린 흙길이 전부다. 높은 담장도 없고, 서로를 갈라놓는 벽도 없다. 언제든지 옆 구획의 시민과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눈인사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정도로 소통할 수 있다. 조용히 텃밭의 생명을 느낄 수 있고, 가끔 이웃이 필요하다면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좋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남 시민 공공 텃밭은 계절을 채색하며, 살아 있는 생명의 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공 텃밭은 2021년 3월 14일 개장해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누군가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누군가는 일상의 유일한 휴식처로 누리기도 할 테다. 하남 시민 공공 텃밭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색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충분히 위로받는 공간, 바로 하남 시민들의 리틀 포레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3월 14일 하남 시민 공공 텃밭 개장!

텃밭명	위치	분양 대상	규모	
			면적	구획
산곡 텃밭	하산곡동 441-14번지 등	취약계층 단체	1,652㎡	10구획
미사뫼텃밭 텃밭	미사동 573-1번지	하남 시민 (주민등록지 기준)	6,721㎡	400구획
초이 텃밭	초이동 370번지, 370-1번지		3,339㎡	150구획

- 공공텃밭 분양 기간: 2021. 3. 14.(일) ~ 11. 30.(화)
- 산곡 치유테밭 분양 기간: 2021. 3. 15.(월) ~ 11. 30.(화)
- 참가비: 3만 원(1구획)





모두의 공간, 품질을 높이다

하남 공공 건축물 품질 검수

하남시는 기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실시하던 품질 검수를 공공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품질을 높여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공간, 공공 건축물이란?

공공 건축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다. 아고라는 본래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아고라조(Agorazo)에서 파생한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건축은 실제로 수많은 상점에 둘러싸인 공간이었다. 당시에는 특권층에게만 정치·종교적 발언권이 있었지만, 아고라는 달랐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발화할 수 있는 자유 발언대의 역할을 하며 공공 건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고라는 모두의 생각이 오가는 공간이었다.

아고라가 자유로운 발언의 상징이라면,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은 평등한 교육의 상징이 되는 공공 건축물이다. 프랑스혁명 이전에 책은 특권 계층만 누릴 수 있었는데, 혁명 기간동안 약 30만 권에 달하는 귀족의 책을 국립도서관에 귀속시키면서 평등한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누구나 지식을 얻고, 질 높은 교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공공 도서관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누구나 의견을 내는 공간, 모두가 질 높은 지식 정보를 영위할 수 있는 건축. 공공 건축물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또 한 뼘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완성도 높은 공간을 위하여

하남시의 공공 건축물 품질검수는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가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품질 검수를 통해 공공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게 단지 좋은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간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하남시 공공 건축물 품질 검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눈에 보는 하남시 공공 건축물 품질 검수



☑ 대상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시청사 증축, 위례도서관 외 공사비 50억 이상 공공건축물
* 단, 필요 시 50억 미만이라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 점검 시기

골조 시공 시(공정률 25% 이상)
사용 승인 전(공정률 98% 이상)

☑ 점검자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건축시공 기술사 및 건축사 등)

☑ 점검 내용

- 공사장 안전시설 및 골조 품질
- 건축물 내·외부 마감 등 시공 전반
- 공용부 시공 상태
- 주요 결함 및 하자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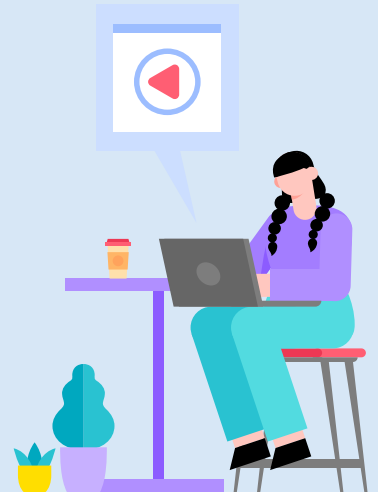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들이다. 지금껏 당연하게 굴러온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비틀리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간에 적응해야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움'이다. 많은 학생들이 새 책가방을 사놓고 제대로 메어 보지도 못한 지금, 마찬가지로 배움에 대한 열망을 어디쯤인가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다. 팬데믹 시대에 그들을 위한 길이 생겼다. 보다 진화한 온라인 학습의 길이다.



온라인 클래스로 새 길을 열다

주말이면 여행을 갔다. 또 주말에는 학원을 다니며 모자란 학습을 보충하고 취미로 배움의 욕구를 충족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당연했던 등교나 출근조차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취미생활이나 배움은 어쩌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2021년 현재 국민총소득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말이다. 이 모든 성장의 근간은 교육, 배움의 힘이었다는 걸 지나온 시간들이 증명하는 상황에서 전무후무한 팬데믹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IT강국으로서 비대면 교육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간파하고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의 종류는 다양하다. 집에서 홀로 거리 두기를 하며 온종일 스마트폰에서 손과 눈을 떼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각성은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3D 렌더링, 베이킹, 부동산 경매, 모션 그래픽, 이모티콘 만들기,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등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냈다. 풍부한 IT 기반 시스템 안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소개한다.



클래스101 class101.net

온라인 클래스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사이트가 바로 클래스101이다. 사진, 영상, 요리, 음악, 운동 등 개인의 취미에 특화된 클래스가 무려 500개를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취미를 넘어서 재테크, 자기 계발 등 보다 현실적인 학습 영역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무언가 배우고 싶지만, 뭘 배우고 싶은지 모를 때 한 번만 둘러봐도 감이 잡히는 플랫폼으로 집콕족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아이디어스 idus.com

아이디어스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곳 역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이 유입됐다. 2019년 12월, 언택트로 수공예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시작한 아이디어스의 특징은 입점한 작가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클래스가 많다는 점이다. 핸드메이드 강의인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현재 요리, 공예, 캘리그래피, 드로잉, 실크스크린, 비누 만들기 등 160여 개의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수강자 후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하비풀 hobbyful.co.kr

취미를 갖고 싶지만 망설여진다. 쓰다 남은 뜨개실,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요리 도구들... 의욕만 넘쳐서 장비부터 갖췄다가 버려진 시간과 돈 때문이다. 그러나 하비풀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일단 내게 맞는 취미인지, 정말 배우고 싶은 과정인 체험키트를 경험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샘플러와 원데이 클래스, 정규 클래스, DIY스토어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프랑스 자수, 업사이클링, 우드카빙 등 다양한 클래스를 만나 보자.





‘묵향 물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학습 공간

|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 |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내부는 온통 수묵화와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빼곡하다. 기분 좋은 묵향을 느끼며 들어서자 작품들 사이로 긴 테이블이 눈에 들어온다. 바쁜 일상 중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담채 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는 하남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수묵화와 캘리그래피로 만드는 나만의 작품

창우동 신안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한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 그 이름처럼 그간의 연구 과제를 뽐내듯 연구소는 수묵화와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상가 내에 있다 보니 주변 주민들의 접근도 쉽고, 관심도도 높은 만큼 빛나는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종류만 해도 수채 일러스트, 대입 자소서 작성, 자이언트 플라워 공예, 강사들을 위한 온라인 줌 강의 등으로 다양하다.

모든 강좌가 인기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강의는 역시 캘리그래피 강의다. 현재 서예와 캘리지도사 1급 자격증, 먹그림 일러스트지도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묵캘리그래피협회 동부지회장, 하남미술협회 문인화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장양희 대표가 직접 별자리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서이다.

“좋은 글을 캘리그래피로 쓰고,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을 액자에 장식할 수도 있으니 만족도가 높아요. 게다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거나 진로 체험·방과 후 학습·문화센터 강의에 나설 수도 있답니다.”

장양희 대표의 말에 이어 시민과 학습 공간을 이어주는 남영희 별매니저는 캘리그래피 강좌의 인기 요인을 덧붙인다. “수묵캘리그래피는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강좌인데요. 훌륭한 강사분들이 포진되어 있어 입소문이 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남 시민을 위해 열려 있는 묵향 가득한 학습 공간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는 별매니저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통한다. 모두가 믿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운

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장양희 대표는 이 공간을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공개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2019년부터 이 공간을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게 됐는데요. 학습 공간을 기부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배움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학습자들이 편히 배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더 많은 분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에서 학습한 이들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어르신들 역시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섣뚝 나서기 어려웠던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장양희 대표와 남영희 별매니저는 한마음으로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을 시작하길 응원했다.

“평생학습에 앞서 망설이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이렇게 좋은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시면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만나서 더 행복한 취미 생활을 이어가실 수도 있고, 나이가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꿈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담채수묵캘리그래피연구소 운영 현황 —

- **공간 운영 시간:**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공간 위치:**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56-1 신안종합상가 228호
- **대여 가능 장비:** 책상, 의자
- **이용 문의:** 010-4276-9119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남, 너는 내 운명

|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 |

지난해 하남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 시민들이 보여준 애정만큼 하남을 향한 그의 애정 또한 열렬하다.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하남을 떠난 적도, 잊은 적도 없다는 그는 경주 최씨 집성촌인 하남 미사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중학교 시절까지 본인의 성(姓)과 본(本)을 '미사리 최씨'로 알고 자랐다. 그의 선조들과 하남의 인연이 그만큼 뿌리 깊게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하남의 국회의원으로서, 하남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국제도시 하남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최종윤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고향이자 삶에 터전인 하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미사리 경주 최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상이 430년 전에 이곳 하남에 터를 잡았으니까 그 오랜 시간의 하남 DNA가 제게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뱃속까지 하남 사람이죠. 중학생까지 '경주 최씨'가 아니라 '미사리 최씨'로 알고 자랐다니깐요. 하하.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 오래된 취미가 걷기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걷고, 계획해서 걷기도 합니다. 13년 전 2008년에 우연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면서 걷기의 즐거움을 알았지요. 10km까지는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이상을 걷게 되면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걷게 되더군요. 그래서 영혼을 맑게 하는 최적의 방법을 명상과 걷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주 거닐곤 하시는 산책길은 어디인가요?

걷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하남에 위례강변길이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위례강변길은 봄이면 벚나무가 뚝방길에 짝 펼쳐지고요. 산곡천부터는 메타세콰이어 길이 연결됩니다. 정말 명품 길이에요. 평지를 가볍게 걷고 싶다면 딱 좋죠. 또 남한산성을 경유하는 능선길도 다섯 시간가량 걸리지만 등산처럼 힘들지는 않아서 자주 걷습니다.

하남시도 제주 올레길처럼 산책길 중간에 관광과 숙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검단산을 돌아나가는 코스로 해서 1박 2일 혹은 그 이상으로 걸으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수도권에서 휴식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둘레길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만의 1%가 있다면요?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의리 있는 사람, 솔직한 사람입니다.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의리와 정직이 필수적이죠. 물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好不好)가 있겠지만 뒤탈은 없어요. 솔직함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모두 결국 진실과 연결되어 있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특히 자신을 대하면서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남시는 의원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운명입니다. 고향에서 오래 살다 보면 대부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남에서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느라 격동의 대학 시절을 보낼 때도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 곳이 하남이기에 정치를 하더라도 하남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제 삶의 터전이자 영원한 고향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특히 자신을 대하면서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모두를 위한 ‘비대면 축제’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던 지역 축제와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 소식을 알렸다.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오프라인 축제는 진행이 불가하지만, 축제 주최 측은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 방송,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 라이브커머스: 웹,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 및 관련 업계가 어려움에 닥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비대면 축제’를 돌파구로 찾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축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불교 연등회, 거리축제, 국제문화교류 사업 역시 온라인이

나 비대면 축제를 진행하며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비대면 시대 축제 실행방안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연결한 하이브리드 축제가 안전하고 차별화된 축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 불가결해진 세상, 불거리, 먹거리, 놀거리 가득한 3월의 온라인 축제를 함께 살펴보자.



스트레스 OUT! 신명 나는 '놀거리'

제주 들불축제

기간 2021. 3. 8. ~ 3. 14.

새별오름에서 개최되는 제주들불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및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는 3월 13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세계 각지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새별오름 한 면에 불을 놓아 통째로 태우는 장관을 연출하는 오름 불 놓기는 해묵은 불과 해충을 없애기 위해 목초지에 불을 놓는 방에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액운을 쫓고 건강과 안녕을 비는 풍습이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오름에 '들불 COVID-19 OUT'이라는 문구를 새겨 불을 놓아 장관이 연출될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더 푸른 미래를 위한 '심을거리'

옥천 묘목축제

기간 3월 말 진행 예정

충북 옥천에서 개최되는 옥천 묘목축제는 소비자 7만여 명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다. 코로나19로 축제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묘목 유통량의 70%를 공급하는 묘목 산업 특구이기에 그 아쉬움은 더 컸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변화를 도모했다. 예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판매 행사는 취소됐지만, 개별 농원에서 묘목 판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 및 전화 구매가 가능하다. 또, 지역 상품권으로 묘목 구매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받을 수 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키워낸 묘목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도달하기를 기대해본다.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먹을거리'

제18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기간 2021. 1. 23. ~ 3. 31.



스마트기기로 위 코드를 인식하면
제18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겨울철 진미 새조개, 새조개는 새의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붙은 이름으로, 조갯살이 크고 두툽하며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단백질, 철분, 타우린 등이 풍부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진 새조개는 특히 청정해역 남당항과 천수만에서 잡힌 것이 감칠맛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18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식 쇼핑몰을 운영해 착한 가격에 새조개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홍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조개 손질 방법과 효능, 새조개 샤부샤부를 맛있게 먹는 법 및 아름다운 남당항의 모습 등을 홍보하고 있다.



금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볼거리'

제25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 (INTERMOLD KOREA 2021)

기간 2021. 3. 16. ~ 3. 22.



스마트기기로 위 코드를 인식하면
국제금형전 온라인전시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은 금형/부품/소재와 공구, 금형가공 공작기계 설비, 자동화기기 등을 선보이는 금형 전문 전시회로 격년마다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올해는 3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식부터 기업별 온라인 전시관,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기술세미나 및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구현된 전시장 사이트 내에서 기업별 온라인 부스를 개설해 기업안내 및 신제품·신기술 소개,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홍보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바이어·방문객과 구매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간을 바라다, 인간을 갈망하다

‘휴먼터치’로 완성하는 언택트 시대

만날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다. 코로나19로 맞이한 비대면 시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속도를 가속했고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닥친 첨단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 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는 지금, 언택트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성’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간다움과 감성. 바야흐로 휴먼터치가 중요해진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언택트 시대가 깨닫게 한 것

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한때 미래 사회의 표본처럼 인식되었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일상이 되게 하고, 첨단기술의 효용성은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행복한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첨단 디지털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언택트 시대에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차가운 디지털 기술로는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감성, 따스함, 인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이미 20년 전에 첨단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 중심의 휴먼터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중심성은 시대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현재 언택트 시대에 휴먼터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자신의 존재감을 인간적 접촉을 보완하는 역할로 다시금 재정립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언택트 기술 안에서 휴먼터치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첨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정성'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휴먼터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가 만들어내는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요소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받는다. 이 기업은 초기에 대부분의 직원을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구성해 사용자가 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만족스러운 결과치를 내지 못한 이 기업은 사용자에게 일대일로 실제 사람 코치를 붙이되, 역으로 AI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술 하나로 사용자의 의지, 스트레스,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까



휴먼터치는 첨단 기술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술이 가진 한계성을 뛰어넘을 것이다.

지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말 그대로 휴먼터치를 도입했다. 영입된 코치들은 사용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의지를 북돋웠으며 그들에게 공감함으로써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AI와 코치의 작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코치의 업무를 AI가 지원하는 형태를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도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세계인의 호응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휴먼터치 영역을 활용한다. AI가 작품들을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나누지만 고용된 태거(Taggar)들은 디지털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미묘하고 미세한 영화의 감성까지 파악해 무려 7만 6000개에 달하는 마이크로 장르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과 연결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의 편리함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도, 공감하기도 어렵다. 결국 속제는 언택트 기술 안에서도 인간의 따뜻함 감성과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먼터치는 첨단 기술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술이 가진 한계성을 뛰어넘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선 그대에게 아이싱 쿠키 꽃다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면 얼었던 눈이 녹고,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며 봄의 시작을 알린다. 새싹처럼 싱그러운 신입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며 인연을 만들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사원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이렇듯 찬란한 시작 앞에 선 많은 이들에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아이싱 쿠키 꽃다발을 선사한다.



Icing Cookies

마음을 전하는 꽃다발

우리는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꽃을 선물한다. 어느 작가는 새로운 시작이나 마무리에 꽃을 선물하는 이유를 “꽃 한 송이가 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 네가 여기 도달하기까지 겪은 수고와 고통, 힘듦을 내가 알고 있다”를 표현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꽃 선물을 무용(無用)하다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쿠키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땅콩이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곱게 간 분태나 미숫가루를 넣어 쿠키 반죽을 만들면 구수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어 어르신 간식으로 좋다. 또 코로나로 외출이 힘든 시기, 쿠키 위에 형형색색의 아이싱으로 장식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베이킹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특히 귀리 가루를 넣어 쿠키를 만들면 영양 가득하고 많이 달지 않은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간식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귀리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동양권 국가에서는 주로 쌀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서양권 국가에서는 아침 식사로 귀리의 가공품인 오트밀을 우유와 섞어 먹는다. 귀리에 함유된 단백질은 쌀의 2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준다.

슈퍼푸드 귀리의 4가지 효능

- ① 콜레스테롤 감소
- ② 성인병 예방에 도움
- ③ 숙변 제거 및 장 내 노폐물 배출
- ④ 성장 발육에 도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아이싱 쿠키 꽃다발

재료

쿠키: 박력분 200g, 설탕 90g, 계란 1개, 버터 120g, 볶은 귀리 분말 30g, 고운 소금 1 꼬집, 바닐라 엑스트랙트 1/2t (생략 가능)

아이싱: 슈가 파우더 80g, 계란 흰자 20g, 레몬즙 1/2t, 식용 색소

레시피

- ① 밀가루는 체에 걸러 준비하고, 버터는 실온에 약 30분 두었다 사용한다. 볼에 버터를 크림처럼 풀어준 후, 소금과 함께 설탕을 세 번에 나눠 넣고 같은 방법으로 계란을 섞는다. 이어서 바닐라 엑스트랙트를 섞어 준 후, 볶은 귀리 분말과 박력분을 넣고 조심스럽게 섞어 반죽을 완성한다.



- ② 반죽을 밀대로 약 0.5cm 두께로 균일하게 밀고 꽃 모양 쿠키 커터로 찍어 모양을 낸 뒤, 긴 꼬치를 꽃아 팬에 펼쳐 놓고 180℃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약 13분간 굽고 식힌다.



TIP

밀대나 도마에 밀가루를 소량 뿌린 후 쿠키를 털어주어도 좋다.

- ③ 계란 흰자와 슈가 파우더, 레몬즙을 섞어 아이싱을 만들고 색소는 이쑤시개 등으로 조금씩 찍어 아이싱 반죽에 살살 풀어 원하는 색을 낸다.



TIP

약간의 양으로도 색이 잘 나니 반드시 조금씩 섞어서 색을 보며 색소를 쓸 것!

- ④ 짚주머니에 아이싱을 담아 쿠키 위에 원하는 꽃 그림을 그려 굳힌 후 꽃 모양 쿠키를 완성해 꽃다발을 만든다.





시민들의 반짝이는 꿈을 응원하는 베이스캠프

|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 |

어두운 밤하늘도 작은 별들이 모이면 환해지듯,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이 모이면 큰 도서관보다도 그 빛이 환하다. 스페인어로 ‘별’이라는 의미의 ‘아스트로’라는 이름처럼 하남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이 반짝이고 있다.

봉사단의 노력으로 꾸려진 작지만, 소중한 도서관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은 2017년 11월 10일에 개관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지금은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있고, 이용객도 많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지만, 처음에는 행하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공간만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스트로도서관 봉사자 모임(아도봉)이 나서면서 비로소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서서히 갖추어나갈 수 있었다.

“입주민분들이 도서관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라벨 작업과 도서 정리 작업을 다 하셨고, 초기에는 순번을 정해 도서관 업무와 각종 프로그램 진행까지 봉사자분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어요.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위원회, 관리소의 지원도 이어졌고요.”

신안건설에서 지원받은 장서 1600권과 입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약 5000여 권으로 기틀을 갖춘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은 하남시 나룰도서관의 도움과 지속적인 도서 입수와 기증을 통해 2021년 현재 1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의 이용객은 주로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하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 제약이 많았지만, 하남시에서 지원받은 마스크 착용 포스터를 붙여놓고, 도서관 인원을 제한하며 잘 극복해나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情)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의 방문객 중 유아와 초등학생, 학부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집과 육아서, 권장 도서의 대출이 가장 많다. 특히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에서는 가까운 위례초등학교 권장 도서를 따로 정리한 코너를 마련하였는데, 절반 정도는 항상 대출 중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또한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의 추천을 받아 책을 대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평소 재미있게 읽었던 책과 비슷한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어렵거나 두꺼운 책을 대여할 때는 미리 대출 연장을 받으며 작은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지현 사서가 요즘 추천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

“코로나 때문에 살이 찘지만, 입맛이 너무 좋아 고민인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나도 편식할 거야’, 술술 읽히는 소설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곰탕’, 가정교육이 길어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자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숙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군 쇠’와 ‘코스모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한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은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유아들에게도 색칠 공부로 인기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2020년 11월에 진행했던 독서와 미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미술을 전공한 이지현 사서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은 책을 읽고 책의 주인공이나 인상 깊은 장면에 에코백에 그려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책을 대여할 때, 책을 넣을 가방이 없다 보니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또 저희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해서 에코백 프로그램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독후 활동 강의나 청소년 봉사자와 유·초등학생을 연계해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공예 프로그램 등 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즐거움이 있는 따뜻한 도서관을 꿈꾸는 위례아스트로작은도서관은 반짝이는 꿈을 키우고 싶은 시민들에게 별처럼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100m 북카페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했습니다.





하남 일자리카페



일자리카페 주1회 야간 직업 상담실 운영

구영진 홍만







하남시의회 소식은 홈페이지
(www.hanamcitycounci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첫 주례회의 개최



하남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첫 주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례회의에서는 △2021년 조직진단 용역 관련 보고(정책기획관) △하남도시공사 주요 사업 보고와 함께 △제300회 임시회 회의 일정(안) 협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회 검토 등이 진행됐다. 하남시는 업무 보고를 통해 인구 30만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2021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 및 완료(2월~5월), 효율적인 조직설계 및 조직개편 반영(6월 이후)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하남도시공사는 △교산 신도시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 △H2 프로젝트(창우동 108번지 일원) △H3 프로젝트(신장동 610, 610-1번지) △캠프콜번 개발 사업(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현황, 개발계획 주요 내용 등을 브리핑했다.

방미숙 의장은 “국가가 고비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며 “우리 하남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은 올해의 코로나19 위기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행부와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내 다시 한번 극복의 기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은 미술관’ 3월 전시

365일 전시가 있는 공간 <작은 미술관>

2주마다 만나는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세계

코로나19로 더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올봄에도 작은 미술관에서 준비한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미술의 향기 가득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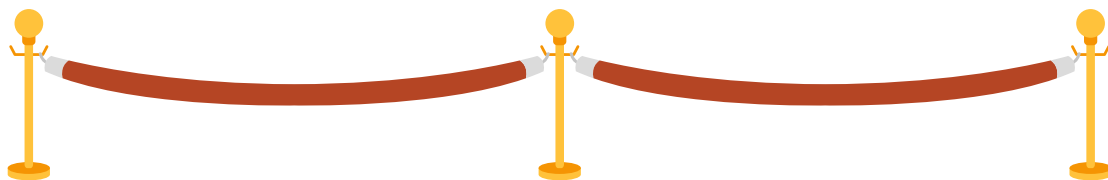
- 전시 기간: 작가별 일정표 참조
- 전시 장소: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 관람료: 무료
- 관람 연령: 전 연령
- 문의: 031-790-7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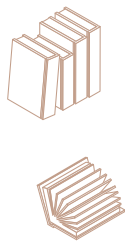


이미정 개인전 <선물같은 날들>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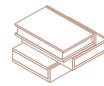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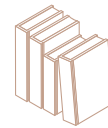
	전시명	기간	장소	관람료
1	이미정 개인전 <선물같은 날들>展	3.26.(금) ~ 4.8.(목)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2	이채현 <Singularity>展	2.26.(금) ~ 3.11.(목) 오전10시 ~ 오후10시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3	김수호 개인전 <나뭇잎 시리즈>展	3.12.(금) ~ 3.25.(목)	스타필드 하남점 웰컴홀 B1	무료

※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도서관 프로그램



하남시립도서관 3월 문화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	프로그램	대상	운영 기간	장소
미사	나무에 마음을 새기다, 우드 카빙 교실	일반	3.19.(금) ~ 3.26.(금) 10:00~12:00	메이커스페이스
	영똥한 고전 읽기	일반	3.10.(수) ~ 3.31.(수) 19:00~21:00	문화교실
	책으로 행복 찾기	중장년	3.11.(목) ~ 4.29.(목) 10:00~12:00	문화교실
	애들아, 동화책 함께 읽자	초등 1~3학년	3.12.(금) ~ 4.9.(금) 16:00~18:00	문화교실
	그림책으로 자라는 아이	7세	3.11.(목) ~ 4.22.(목) 16:00~17:00	문화교실
	아트 주얼리의 세계	일반	3.15.(월) ~ 3.22.(월) 11:00~12:30	온라인 (zoom)
	스토리텔러 3급 자격 과정	일반	3.18.(목) ~ 5.20.(목) 9:30~12:30	
	스토리 콘티 짜보기	초등 4~6학년	3.10.(수) ~ 4.28.(수) 16:00~18:00	
	제5회 미사 공방 : 생활 자수로 친환경 소품 만들기	일반	3.11.(목) ~ 3.12.(금) 10:00~12:00	
나물	제52회 나를 찾는 삶의 인문학 <온라인 북토크>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단단한 말들	중학생이상	3.16.(화) 19:00~21:00	온라인 (zoom)
	색연필로 그리는 꽃 세밀화	일반	3.8.(월) ~ 4.26.(월) 10:00~12:00	
	무라카미 하루키 음악과 소설 이야기	일반	3.16.(화) ~ 5.4.(화) 10:00~12:00	
	철학하는 아이들	초등 3~4학년	3.12.(금) ~ 4.30.(금) 15:00~17:00	
	셀프 수련을 위한 초보자 요가	일반	3.10.(수) ~ 4.28.(수) 10:00~12:00	
디지털	인공지능 정복하기	초등 4~5학년	3.2.(화) ~ 3.25.(목) 16:00~18:00	온라인 (zoom)
	패드로 만드는 나만의 부캐	일반	3.6.(토) ~ 4.10.(토) 10:00~12:00	온라인 (밴드 및 zoom)
	미래코치, 부모	일반	3.17.(수) ~ 3.31.(수) 10:00~12:00	온라인(zoom)

신청 기간 및 방법: 각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미사도서관 ☎031-790-6884 / 디지털도서관 ☎031-790-6811

나물도서관 ☎031-790-6887 / 세미도서관 ☎031-790-6804 / 덕풍도서관 ☎031-790-6959

※ 사정에 따라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나 재료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



부지런한 사랑

작가만의 속도로 써 내려간 에세이

에세이 5종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펴내며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이슬아 작가. 그의 글은 편차가 없고, 읽는 이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힘이 있다. 여섯 번째로 출간한 에세이 <부지런한 사랑>에서는 연재 노동자가 아닌, 글쓰기 교사로서의 값진 시간과 경험에 관한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슬아 글방’은 2014년 봄부터 시작되어 형제 글방, 여수 글방, 청소년 글방, 어른 여자 글방, 코로나 시대의 글방으로 이어져 왔다. 아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슬아 글방을 찾아온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사이, 일기 쓰기에 열심이었던 아이 이슬아, 작가 이슬아, 교사 이슬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특히, ‘재능과 반복’에서 꾸준함 없는 재능과 재능 없는 꾸준함에 관해 진솔하게 터놓은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이슬아 / 문학동네 / 2020

일반



푸른 빛의 소녀가

박노해 시인의 첫 번째 ‘시 그림책’

현대사의 결정적 시기마다 심장을 울리는 글과 근원적 실천으로 시대를 관통해온 박노해 시인이 전혀 새로운 책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저 먼 행성에서 불시착한 푸른 빛의 소녀와 지구별 시인의 가슴 시린 이야기로, 박노해 시인의 시「푸른 빛의 소녀가」로 만든 ‘시 그림책’이다. “지구에서 좋은 게 뭐죠?” 우주적 시야로 바라본 우리 삶의 근본 물음, 푸른 빛의 상상력을 불러넣는 신비로운 여정. 국내에서 그림책으로 처음 소개되는 러시아 거장 말레비치의 명화 29점이 시와 함께 강렬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박노해 / 느린걸음 / 2020

일반



긴긴밤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 바위 코뿔소와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

이 책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 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 없이 많은 날의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울통불통한 길 위에서 엉망인 발로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 길고 컴컴한 밤을 기어이 밝힌 것은, ‘더러운 웅덩이에 뜨는 별’ 같은 의지이고, 사랑이고, 연대이다.

루리 / 문학동네 / 2020

어린이

하남 시즌 주요 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총력

하남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의 국가 계획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 체계 유지 및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시는 올해 3분기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11월까지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본격 구성했으며, 민간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 등 의료계 4명의 전문가 자문단과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등의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밖에 시는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 기관으로 구분해 접종을 실시하며, 노인 요양시설이나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등에 대응키 위해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정책과(031-790-5081)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래학교 '꿈트리' 성료

마을자원 및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 스스로 배움을 실현해나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꿈트리는 시를 비롯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및 하남도시공사가 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였다. 꿈트리는 관내 학생 20명을 선발, 5학급으로 구성해 총 6주간 에듀테크 수업, 학생주도 프로젝트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4차 산업 관련 이론 및 VR, 증강현실 등 기술을 비롯해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민주시민 교육, 인문학, 하남이야기 등으로, 온·오프라인 학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업 전 온라인 영상 등으로 미리 학습한 뒤 실제 수업은 토론 등으로 이루어지는 '플립 러닝 방식'을 도입,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1월 29일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꿈트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표회 및 졸업식을 개최, '하남혁신교육지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발표된 프로젝트는 참여 학생들이 직접 견학한 지역의 주요장소를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가치를 재창조한 것으로, 그간 학생들의 학습 성과 및 풍부한 상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과(031-790-5519)

3

시민 제안숙성평가 참여단 '전지적 참여 시민' 모집

하남시는 아이디어 제안에서 숙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전지적 참여 시민'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시작한 '전지적 참여 시민'은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모집 없이 기존 인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운영했다. 올해는 시민 100여명을 새롭게 모집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연말까지다. 선발된 시민들은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상 속 불편함과 공공문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게 된다. 시정에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안의 숙성(보안)과 심사·평가 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과정 참여가 숙의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며 "시민과 함께 빛나는 하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113명이 '전지적 참여 시민'으로 참여해 '국민생각함'에 다양한 제안을 등록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책에 반영했다.

정책기획관(031-790-5946)



4

취약 계층 어르신 건강 관리 '비대면으로 행간다'

하남시는 코로나19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건강 취약 계층 어르신을 위해 비대면 건강 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강 취약 계층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노쇠 노새 프로젝트'를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20명에게 화상채팅 앱 ZOOM(줌)을 활용해 주 2회 맞춤형 운동·영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겨울철 활동량을 높이는 유산소·근력·스트레칭 운동을 안내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 어르신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장기간 실내 생활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영양 교육도 병행한다.

건강증진과(031-790-5628)



5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민 건강 지킨다"

하남시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 평균 $75\mu\text{g}/\text{m}^3$ 에서 $44\mu\text{g}/\text{m}^3$ 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먼지도 월 평균 $36\mu\text{g}/\text{m}^3$ 에서 $23\mu\text{g}/\text{m}^3$ 로 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 및 은고개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환경정책과(031-790-5882)

6

공공장소 380곳에 무료 와이파이 '대폭 확대'

하남시가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 380곳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다. 버스정류장 156개소 ▲경로당 133개소 ▲공원 61개소 ▲공공시설 18개소 ▲문화복지시설 8개소 ▲공영주차장 4개소에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곳에서는 통신사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와이파이 신호를 켜고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장시간 머무르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전까지 공공장소 45개소에 설치돼 있었으며, 올해 7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담당관(031-790-5331)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안내

- **신고 대상:**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행위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하남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로 제출 또는 서면 제출
 - ※ 부조리 행위의 증거 제출 필요
- **운영 원칙**
 -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
 -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청렴감사관 (031-790-6067)

2021년 '상자·옥상텃밭' 분양 안내

- **사업 내용:** 상자·옥상 텃밭 분양 및 보급
 - 상자텃밭 보급사업 : 50개소(기관별 10세트)
 - 옥상텃밭 조성사업 : 5개소(기관별 10평 내외)
- **신청 기간:** 2021. 3. 16. ~ 3. 18.(3일간)
- **신청 대상:** 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시설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 **신청 방법:** 도시농업과 내방 접수
 -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상자, '옥상' 검색)



문의: 도시농업과(031-790-62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 배경:**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적용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부동산:** 하남시 농지 및 임야
- **특별법 시행 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처리 절차**
 1. 신청인은 해당 동 지역 보증인의 보증(5명 이상)을 받아 하남시에 확인서 발급 신청
 - ※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2. 하남시 (토지정보과)는 보증 사실 진위 여부 등 확인 후 2개월 간 공고
 3. 공고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의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
 4. 신청인은 확인서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허위 신청 및 처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6401)

'비대면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대상:** 금연 희망자
- **내용**
 - 1차 금연 상담 및 등록(사전 예약 필수)
 -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 키트(금연 보조제 등) 우편 발송
 -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 문자 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코티닌 측정 확인)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 상담실(미사보건센터 내 1층 위치)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금연클리닉 상담실 (031-790-6168)

재난심리지원 ‘마음위로 함께 하남’

- 대상: 자가 격리자 및 코로나블루 호소 시민
- 일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내용
 -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평가 및 심리상담
 - 나. ‘마음위로 함께하남’ 키트(마사지볼, 컬러링북 등) 제공
-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신청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마음톡톡,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일시: 평일 주중(오전 9시 ~ 오후 6시)
- 내용: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련 4회기의 단기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법
 - 가. 홈페이지 ‘상담신청’(http://www.cmhc.co.kr)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신청
 - ※ 단기 상담 평가 후 결과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상담 진행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재해,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가입 기간: 연중
- 지원 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 내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등)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
 - ※ 지원비율은 보험 가입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구분	지원비율	가입방법	참고사항
주택	84.1 ~ 90.8%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입 대상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지원율)
온실	83.5%	민간보험사* 가입 문의	-
상가·공장	70%		소상공인 대상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문의: 안전정책과 (031-790-6456)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口)-전환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해년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승·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해년 때에
말(口)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가 50여명인 사람이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합니다.

4월 } 첫 번째 수요일
10월 }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연 2회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당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참지형 선거공보를
해지형 선거공보 맨주의 두 배 이상으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당일 선거공보 제출 금지 (선거일 당일 선거공보 제출 금지)

후보자가 해지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청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2021 수어학당 개강 안내

수어로 한 걸음 더, 지역사회 농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어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구분	초급반	중급반
신청 기간	개강 전까지	
교육 기간	3월~종료 시까지	
개강일	3월 초	
시간	10:30 ~ 12:00 (화, 목)	10:00 ~ 12:00 (월, 수)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초급반 수료자
수업료	무료(교재비 별도)	7만 원(교재비 별도)

○ 신청 방법: 방문접수(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2층)

문의: 수어학당 (031-791-5512~13)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 신청 대상: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 신청 자격: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무관
- 지원 내용: 주간 활동 프로그램 이용
참여형(건강 증진 활동, 문화 관람 등),
창의형(음악 활동, 미술활동 등)
- 제공 시간: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단축형 이용자 외 지원 시간 감소
※ 본인 부담금 없음
- 신청 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제외 대상: 학교 재학 중인 자, 취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등
- 제공 기관: 이룸움직임발달센터 ☎ 031-795-2622,
(사)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 하남시지부
☎ 031-792-1417
※ 발달장애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2021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개강

- 교육 대상: 하남 시민 및 하남시 종사자(4인 이상 개인 또는 팀 신청), 활동가 양성 과정은 도시재생대학 기수료자에 한함
- 교육 기간: 2021. 3. 8.(월) ~ 2021. 5. 14.(금)
※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개강식 및 수료식, 선진지 답사 조율 및 진행
- 교육 장소: 하남 생활문화센터, 신장동 현장지원센터 등
- 대학 구성: 총 5개 단과대학(총 9강, 18시간 이상)

공공디자인대학	원도심 내 공공 공간 개선을 위한 주민 활동
도시브랜딩대학	마을 자원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재생 마케팅 강화
도시환경대학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환경 탐구
주민공동체대학	도시 재생의 이해 및 공동체 의식 입문강좌
활동가 양성 과정	도시 재생 사업, 주민 조직화 역량을 양성하는 전문 강좌

○ 신청 기간: 2021. 2. 15. ~ 2021. 3. 5.

○ 신청 방법: 메일(lmj6969@korea.kr)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 참가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카페에 게시



문의: 도시재생과 (031-790-5209)

/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자살 위기 상담 전화

- 대상: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분, 자살 유족
- 내용: 24시간 자살위기 상담
- 기간: 365일 24시간
- 방법
가. (주중) 자살예방센터 ☎031-794-6508
나. (평일 야간, 공휴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또는 ☎1393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하수도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는 2019년 기준 하수처리 원가의 38.18%(전국 평균 49.89%, 경기도 평균 47.50%)로 재정 손실이 누적되어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전년대비 6.44%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월 6500원에서 6920원으로 42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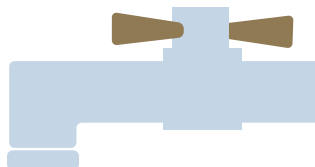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내용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2020. 12. 31.)

(단위 : 톤/원)

구분 업종	단계 (m)	인상 전 단가(m)	인상 후 단가(m)		
		현행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10	325	346	368	392
	11~20				
	21~30	455	484	515	549
	31 이상	751	799	851	906
일반용	1~100	583	621	661	703
	101~300	755	804	855	910
	301~1000	1,046	1,113	1,185	1,261
	1001~2000	1,458	1,552	1,652	1,758
	2001 이상	2,912	3,100	3,299	3,512
대중탕용	0~1000	1,338	1,424	1,516	1,614
	1001~1500	1,528	1,626	1,731	1,843
	1501~2000	1,721	1,832	1,950	2,075
	2001 이상	2,413	2,568	2,734	2,910

○ 적용 시기: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문의: 하수도과 (031-790-6281)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복층 설치 안내

○ 2020.10.22.부터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복층 설치 허용 기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복층 설치 허용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및 제4호 아목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만 가능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

○ 복층 설치 주요 기준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 그 바닥 면에서 천장 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단,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열린 공간 구조로 할 것
6. 칸막이 내부 마감재로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할 것(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참조.

○ 복층 설치 절차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표시 사항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관련 도면에 표기 가능

○ 복층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복층을 설치한 경우

- ☞ 2021.10.21.까지 상기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미조치 시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건축과 (031-790-6395)

하남시립도서관

소식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시행

하남시립도서관에서 3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PC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식지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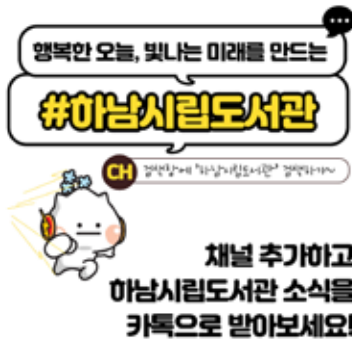
소식지는 도서관 별로 흩어져 있는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차게 구성해 매월 색다른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기능,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곧바로 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걸기 기능, 홈페이지로 연결하기 기능 등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 창간호는 하남시립도서관의 이야기, 신규 프로그램 안내, 창간 이벤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됐다.

소식지는 홈페이지와 하남시립도서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걷기 가이드라인

○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걷기



○ 즐거운 걷기 참여 방법: 모바일 앱 '워크온' 가입하고 걷기

- ①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워크온앱 설치
- ② 회원 가입
- ③ 하남시 커뮤니티 가입하기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6885)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전기 승용차**: 보조금 평균 1100만 원, 193대 선착순
- **전기 이륜차**: 보조금 평균 180만 원 26대 선착순
- **수소 승용차**: 보조금 3250만원, 91대 선착순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하남시에 거주
 - 전기 승용차,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변동
- **LPG 1톤 화물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 40대 선착순
 -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구매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신차 구입**: 보조금 700만 원 25대 선착순
 - 지원 대상: 어린이 통학용으로 LPG 신차 구매자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4)

노후방지사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신청 자격**: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4·5종
- **지원 규모**: 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자부담10%)
- **지원 금액**

구분	보조금 지원액
입자상물질방지사설	최대 2.7억원
가스상물질방지사설	최대 2.7억원
공동방지사설	최대 3.6억원

- **공고 기간**: 2021. 2. 1.(월) ~ 3. 8.(월)
- **접수 기간**: 2021. 3. 3.(수) ~ 3. 8.(월)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처**: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3. 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031-539-5106~5114)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 기간:** 2021. 3. 2(화) ~ 3. 19(금)
- **지급 대상:** 관내 저소득층 자녀 159명
(중 60명 / 고 64명 / 학교 밖 35명)
-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 / 학교 밖 14 ~ 16세(70만 원)
고등학생 / 학교 밖 17 ~ 19세(100만 원)
- **지원 방법:** 계좌 입금(4월 / 9월, 각 50%씩 지원)
- **자격 요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 **선발 기준:** 품행 단정·학업 충실자, 봉사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전반적인 사항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 선발 / 1가구당 1명 지원,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 없는 자 우선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평생교육과 (031-790-6107)

간편해진 임신부 등록

-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
임산부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서비스 제공 사이트**
임산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서비스 내용**
 - 온라인 임신부 신고 및 우울증 자가진단검사
 - 우울 검사 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임신부 등록만 가능, 엽산제·철분제 수령 및
그외 상담·서비스는 미사보건센터 직접 방문
시 가능
 - ※ 임신부 신고 시 파일 첨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중 택 1)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모자보건실 (031-790-5040)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안내

- **소재지:** 시청 경관광장(신장동 520-1)
- **운영 목적:** 시민들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키우는 커뮤니티 장으로 생활문화 활동과 공간 지원
- **운영 시간:** 수 ~ 일요일 / 10:00 ~ 19:00(월, 화, 법정공휴일 휴관)
- **공간 안내**

구분	마주침 공간	활동 제안	모임방1~4
공간 소개			 
활동제안	휴게, 커뮤니티 활동	동아리 활동, 세미나	소모임, 전시 활동 등
비 고	오픈 공간	대관 공간	대관 공간

- **이용 방법:** 이용일 1일 전까지 대관 신청(단체 / 개인별 주 1회, 최대 3시간 대관 가능)
- **신청 방법:** 블로그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전송 또는 카카오톡 온라인 신청
- **안내** - 블 로 그: <https://blog.naver.com/hanamhada>
 - 카카오톡: '생활문화센터 하다' 검색
 - 전 화: 031)791-5002
 - 이 메 일: hanamhada@naver.com

문의: 도시재생과 (031-790-6778)



하남시 시정 소식지 《청정하남》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3월호를 읽고 좋았던 내용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접수 방법 하남시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청정하남 > 시정 소식지 독자 참여'를 통해 참여
- 접수 마감 매월 12일 • 선물 발송 매월 27일경 참여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예정

최성호 독자

지역화폐 너무 좋아요! 소비자는 10% 할인도 받고, 판매자는 가맹점 수수료 적게 내고, 앞으로 하머니를 더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영 독자

겨울의류 관리법과 특히 보풀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봄이 되기전에 미리 알게되어 정말 좋습니다. 늘 한발 앞서가는 청정하남을 응원합니다.

이수혜 독자

하남에 공공텃밭 분양 정보가 관심이 갑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갈 곳을 잃어버렸는데 텃밭 통해 건강한 식거리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네요^^

김형석 독자

아날로그에 관한 코너는 옛날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 코로나로 보내기 힘겨운 이 겨울, 따뜻했던 예전 기억이 떠올라 너무 좋았습니다.

홍수진 독자

여성친화적 도시라는 내용은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가나, 세부 사항을 알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 소개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관련 내용으로 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 퀴즈

주 1회 저녁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하남시민의 구직신청 및 상담,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

가로세로 낱말퍼즐

EVENT

아래 낱말 퍼즐에서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채워 인증샷을 1811-0751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성함 기재 필수! 응모 기간은 3월 12일까지, 힌트는 본지 3월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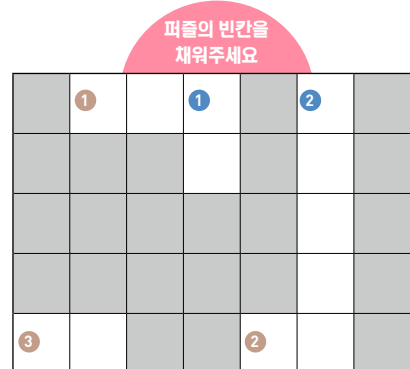
가로 퀴즈

- ① 지난해 8월 8일 5호선 하남선 1단계를 개통하였는데요. 올해 3월 개통될 2단계로 하남선은 5호선 방화역에서부터 하남□□□역까지 추가로 이어집니다. 하남□□□역에 들어갈 지명은?
- ② 하남역사박물관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 □□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 조성된 역사공원에는 청동기 시대의 □□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은 선대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이란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 들어갈 낱말은?
- ③ □□은 콜레스테롤 감소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에 들어갈 식물의 이름은?

세로 퀴즈

- ① 하남시는 3월 14일 하남시민 공공 텃밭을 개장했습니다. 공공 텃밭은 미사뿔밭 텃밭, 초이 텃밭, □□ 텃밭 등 총 세 군데입니다. □□ 텃밭은 하산곡동 441-14번지 인근에 있는데요. □□에 들어갈 낱말은?
- ② 하남시는 기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실시하던 품질 검수를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에 들어갈 말은?

※ 2월호 정답은 ① 여성친화 ② 딸기 ③ 연꽃 ④ 온라인어권 ⑤ 투명페트병입니다.



달달한 오후 ‘화이트데이’

#사탕? #초콜릿? #달콤함 한 가득 #화이트데이

bang.seonyeong



❤️ 💬 📌

화이트데이에는 역시 사탕이 최고! 달달함은 딸기 사탕이 제일! 고마워요 막내이모♡
#청정하남 #달콤한화이트데이

agathonica



❤️ 💬 📌

사랑 듬뿍 담아 더 달콤한 수제 딸기 케이크~
#핸드메이드 #딸기케익 #달콤한화이트데이

Office_1091_aa



❤️ 💬 📌

달달 젤리 당 충전!
#청정하남 #달콤한화이트데이

yammyamm_0_0



❤️ 💬 📌

초코 왕창 넣고 달콤한 오후 만들기
#청정하남 #달콤한화이트데이

#

4월호 인스타 주제어
#봄봄 입니다.
SNS 채널에 #청정하남 #봄봄
태그해주시거나,
주제어 관련 사진을 편집실 이메일
hanam-city@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3월 12일까지)



chu_130092



❤️ 💬 📌

멕시코의 달콤함, 아이스크림 밥
아로스콘 레체와 함께!
#청정하남 #달콤한화이트데이
#멕시코디저트 #아로스콘레체



독자 클마당 '월간 한 줄'

삼일절 삼행시

글 최수아



삼: 삼일절에는

알: 일제에 맞서는 용감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 절대 잊어선 안 된다.

태극기와 마스크

글 정진애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삼일운동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태극기만큼이나 소중한 마스크 쓰기 중

위험 무릅쓰고 집 밖으로 나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삼일운동
코로나19 위태로움에 대처로는
학교도 일터도 모두 잠시 멈춤으로
각자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종식 운동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네



사탕

글 이태영

나는 사탕이 좋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가식하지 아니한다.
'난 예쁘지' '난 달콤하지' '게다가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지'
이렇게 마음껏 뽐낼 뿐이다. 점잖은 척 유익한 척 고상한 척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독자 글마당 '월간 한 줄' 모집

4월호 주제어

나무

꽃밭

산책

'월간 한 줄' 응모 방법

주제어가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200자 이내로 보내주세요.

삼행시나 언어유희의 짧은 글도 좋아요!

hanam-city@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채택된 이야기는 월간 한 줄 코너에
소개하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하남 역사를 잇다



농민운동가 김용기



聖(성)김성우



개혁가 유길준



소설가 김유정



독립운동가 김교영



독립운동가 구희서



독립운동가 김홍렬



독립운동가 이대헌

농민운동가 김용기, 1909 ~ 1988

풍산동(옛 풍산리) 거주. 1962년 풍산동에 가나안농장을 개간해 운영하였으며,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공헌

聖(성)김성우 안토니오

1795 ~ 1841

망월동(옛 구산리) 출생, 천주교 박해과정에서 순교, 1984년 5월 6일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 구산성지 가족묘에 안장

개혁가 유길준, 1856 ~ 1914

덕풍동(옛 덕풍리) 거주. 최초 국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서유견문」 등 최초의 국한문 혼용의 서양견문록을 쓴 개혁가. 검단산에 안장

소설가 김유정, 1908 ~ 1937

상산곡동(옛 상산곡리) 거주. 상산곡동에서 집필활동을 하였으며, 주로 농촌 소재 소설 집필, 대표작으로 「봄봄」, 「동백꽃」, 「금을 따는 콩밭」 등

독립운동가 김교영, 1858 ~ 1929

망월동(옛 망월리) 출생. 1919년 3월 27일 동부면사무소 앞 만세시위 주도. 이로 인해 투옥되었으며,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독립운동가 이대헌, 1883 ~ 1944

교산동(옛 교산리) 출생. 1919년 3월 27일 동부면사무소 앞 만세시위 주도. 이로 인해 투옥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독립운동가 김홍렬, 1886 ~ 1948

풍산동(옛 풍산리) 거주. 1919년 3월 26일 풍산리에서 주민들과 만세시위 주도. 이로 인해 투옥되었으며,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독립운동가 구희서, 1872 ~ 1951

감일동(옛 감일리) 출생. 1919년 3월 27일 서부면사무소 앞 만세시위 주도. 이로 인해 투옥되었으며, 1992년 대통령표창 추서